

동아시아 고대사에서 신라의 위상

2017. 9. 5.

주보돈 *

1. 신라의 성립과 삼국

- 4세기 성립. 진한에서 신라로.
- 신라는 지리적 위치상 뚜렷한 한계. 장점도 있음. 북방문화의 끝자락. 다양한 문화가 모여듦. 상대적으로 북방의 動搖로부터 영향이 적음.
- 선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시하는 경향. 당시 북방과 중국. 낙랑 대방의 멸망. 새로운 선진지역이 대상.
- 삼국 가운데 가장 후진적. 고구려에 의존하기도 하고 백제에 의존하기도 함. 외교적 역량을 길러온 것.
- 신라의 보수성에 대한 인식. 골품제를 근거로 그렇게 진단하는 경향. 그러나 그런 상태로 천년 동안 유지되기는 어려움. 잘못된 오해 가능성. 때로는 보수성을 보이지만 진취적, 적극성을 갖고 있음.

2. 중국 방면

- 秦漢 이후 한동안 통일 왕조. 그러나 2세기 말부터 분열. 三國시대로 진입. 근 5백년 동안 분열의 시대.
- 그 시기에 한반도는 分立에서 통합을 지향.
- 두 지역이 사실상 분립한 상태. 이후 통합을 지향하던 시기와 통합된 이후 두 지역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. 매우 유동적인 시기.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命運이 걸림. 外交가 중시되던 시기.

*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.

-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역임, 한국목간학회 회장 역임, 한국고대사학회 고문.
- 주요논저 : 『신라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』(1998, 신서원), 『금석문과 신라사』(2002, 지식산업사), 『가야사 새로 읽기』(2017, 주류성) 등.

3. 신라가 삼국 시대, 즉 통일 이전 시기에 중국 중심의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된 것은 세 차례. 각각 방법이 다름.

A) 前秦과의 통교.

- 고구려의 도움.
- 377년, 382년 두 차례.
- 부견과 위두의 대화. 내용이 단편적이지만 전해져 흥미.
- 이후 고구려와의 예속이 강화. 전혀 얼굴을 내밀지 못함.
- 불모 파견.
- 399년 왕성 함락 사건.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南征과 救援戰.
- 군사 주둔과 정치적 간여.

B) 521년 南朝의 梁과 통교.

- 이때도 獨力이 아닌 백제의 도움.
- 433년 羅濟同盟. 고구려의 예하를 벗어남.
- 464년 고구려와의 관계 파탄
- 475년 한강 상실. 군사 협조. 백제와 신라 각각의 내부 사정.
- 6세기 초 백제와 대가야의 관계 파탄
- 521년 梁나라에 사신 파견. 백제의 도움. 梁職貢圖의 기록. 斯羅라 지칭하면서 조그마한 나라로서 백제에 부용된 듯한 기록. 최초로 신라가 입전된 중국 정사인 『梁書』 신라전에는 이때의 기록을 근거로 한 신라 인식.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백제를 통해 소통 가능하며 부속된 듯한 기록. 백제의 신라 인식을 그대로 보여줌.
- 이후 신라는 백제 대상의 강한 경쟁 심리. 聖王을 따라 잡으려 함. 武帝의 불교 수용.

C) 眞興王의 한강 유역 진출 승부수.

- 독립으로 국제무대에 신라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내미는 계기.
-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적으로 돌림. 관산성 싸움 유발.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한강 유역 장악.
- 새로운 대중 교통로가 열림. 국제관계의 큰 전환.
- 신라는 남북의 두 왕조와 동시에 통교. 564년 北齊와 통교, 565년 關작. 곧이어서 남조의 陳과 통교.
- 신라는 자기 변신. 자신감을 갖게 됨. 새로운 위상을 갖추어감. 삼국과 대등하게

경쟁한다는 의식. 독립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올림. 강한 자신감. 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해감.

D) 김춘추의 多者 외교와 전쟁

- 통일 왕조 隋·唐과의 적극 외교. 생존을 모도하기 위한 시도.
- 내부적 지향을 다르게 설정. 儒學을 이데올로기로 한 王道政治 표방. 眞興王의 유학적 입장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.
- 다른 한편 대당 의존 외교. 삼국 간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걸음.
- 독자적 年號 사용 포기. 五廟制 수용. 중국식 제도와 禮制 적극 수용.
- 唐服 착용. 남녀 관인과 그 부인 모두. 일본과의 의복 사건. 羅唐 軍事同盟을 의심.
- 결국 당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 셈.
- 外交戰의 승리. 당은 처음에는 저울질. 신라는 밀착해감.
- 사실 당과의 싸움은 休戰. 그리고 停戰으로, 終戰으로 발전. 그 기간 동안 적극적 외교와 內治를 통한 정비. 발전

E) 君子國

- 737년 聖德王의 사망. 당의 玄宗이 弔問使 선발. 이때 신라를 邢璣. 詩文 經學과 바둑에 밝은 사람을 선발. 파견하여 경쟁.
- 이미 당도 인정할 정도로 신라의 위상은 상당한 수준. 통일 이전과는 今昔之感.
- 東京이란 自意識. 안사의 난. 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진행.
- 王城國 사건.
- 金憲昌의 난에 國號와 연호 사용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옴.
- 장보고의 활동. 세계관의 변화.
- 이후 신라도 皇帝國 의식으로 발전.

※ 『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』(총 30권) 인터넷 열람 주소(e-book)

▶ http://www.gb.go.kr/open_silguk/silla_history/main.do ◀

[시민강좌]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(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, 한국고대사학회)

[도움이 되는 글]

경상북도, 2016 『신라사대계』(1~30권)

한국고대사학회, 2017 『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, 2』, 주류성

젊은역사학자모임, 2017 『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』, 역사비평사

한국역사연구회, 2016 『한국고대사산책』, 역사비평사

<MEMO>

<절취선>

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<시민 참여> 질문지

*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.

*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,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